

‘사랑’ ‘훈련’이라는 가면을 쓴 체벌... 그것은 범죄입니다



Sports & Law Story

양준진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분석센터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 전면 금지 선수들 사이에선 여전히 체벌 존재 의심 폭력은 결코 실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아

지난 연말 우울한 소식 하나가 스포츠계로부터 전해졌다. 농구국가대표 출신의 유명인이 폭력으로 실력을 선전받았다는 것이었다. 혐의 내용은 가볍지 않다. 골프채, 하키채 등으로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다. 지난해 초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역대선수도 후배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소식이었다. 태도 불량인 그 이유였다. 비슷한 사건은

빙상 종목에서도 있었다. 역시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는데, 후배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범죄에는 동기 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물론 아주 사소한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는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에게도 동기가 있다. 그런데 동기가 있다고 해서 또는 정당하다고 해서 범죄까지 정당화되진 않는다. 형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 51조에서 ‘양형(量刑)의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고려할 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동기’를 들고 있을 뿐이다. 후배가 버릇이 없어서, 후배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서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유일 뿐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폭력의 좀더 합리화된 이름이 체벌(體罰)이다. 사랑, 훈련, 훈육 등의 목적으로 벌을 가하는데,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동원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다. ‘죽이든 살리든 사람만 만들어주세요’, ‘군대 가서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 3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아무도 그에 대해 의의를 달지 않았다. 법률도 학교 내 폭력, 특히 운동부 내 폭력에 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관행과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理性)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했다. 그러자 학교에선 교칙 등으로 체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길이 30cm 이하, 지름 1cm 이하의 등근 재질로 된 나무 막대기로 살이 많은 부위를 10회 이하’와 같은 것이었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교육적 목적으로’이라는 제한도 함께였다.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현재는 위와 같은 체벌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시·도 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6조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체벌, 파동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선수에게 예외일 순 없다. 운동선수가 기 전에 학생이고, 사람이다.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 합리화했던 폭력이 존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됐다. 그럼에도 운동선수들 사이에선 여전히 체벌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전염되고, 학습돼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그저 후배라는 이유로 선배의 몸동시에 제를 견뎌야 한다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폭력을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에게는 저절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나도 후배 시절에 많이 맞았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겠지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 요즘 후배들은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 선배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봐라’라는 주장이었다. 어느 얘기가 맞을까. 박지성 선수 아버지의 말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가끔 지성이기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축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폭력은 권위를 세우는 데도,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성현, 하나금융그룹 모자 쓴다

본지 단독

국내 여자골프의 인기스타 박성현(24)의 모자를 하나금융그룹이 접수한다.

9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박성현 선수와의 메인스폰서 후원계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90% 이상 확정됐다. 현재로서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계약이 임박했음을 귀띔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및 연봉 등의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 수일 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의 모자를 쓰게 될 박성현의 연봉은 현재 활동 중인 여자골프 중 최고 대우가 될 전망이다. 박성현은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하며 상금, 최저타수상 등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 역대 K.LPGA 투어에서 박성현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신지애(29)와 김효주(22) 정도다. 신지애는 2006~2008년까지 K.LPGA 투어 상금왕을 3년 연속 차지한 뒤 2009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간 최대 15억원씩 5년 동안 75억원을 받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김효주는 2014년 K.LPGA 투어의 여왕에 오른 뒤 2015년 롯데와 재계약하면서 5년 등

안 매년 13억원씩을 받는 대형계약의 주인공이 됐다. 박성현의 계약 조건(연봉 및 기간)은 신지애, 김효주에 뒤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시즌 중반부터 여러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던 박성현은 연봉 10억원대를 훌쩍 넘겼다. 하나금융그룹도 그 중 하나였다. 10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은행챔피언십 전부터 박성현에 관심을 보였고, 계약기간 및 연봉 등의 조건을 시장조사해왔다. A기업의 관계자는 “우리도 박성현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박성현 선수를 붙잡기가 어려웠다. 1~2억원 정도 차였으면 계속 영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5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A기업은 순수 연봉으로만 약 10억원 정도를 제시했다. 하나금융그룹과의 대박 계약을 눈앞에 두면서 박성현은 프로 데뷔 3년 만에 무명에서 일약 최고 스타로 인정받게 됐다. 박성현은 2014년 데뷔했다. 당시 넌스포부터 약 1억3000만원(주주)의 연봉을 받았다. 신인치고는 높은 연봉이었지만, 함께 데뷔한 1999년생

국내 여자골프 최고 대우 계약 임박 골프클럽은 테일러메이드가 후원 트리오 백규정, 고진영, 김민선 등에 밀려 제대로 이름도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몸값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진정한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박성현의 모자와 옷, 골프백에 새겨질 후원사는 모두 확정됐다. 모자는 하나금융그룹이 접수할 예정이고, 고진모터스는 미국에서 타고 다닐 아우디 Q7을 후원한다. 골프백은 테일러메이드의 드라이버를 사용해 더 화려한 장타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빈폴골프와 나이키골프, 대한항공이 박성현의 후원사다. 하나금융그룹과의 공식 계약은 2월 중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드에서 훈련 중인 박성현은 2월24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LPGA타일랜드 출전에 앞서 잠시 귀국한다. 주영로 기자 nal1872@donga.com



토마스, PGA 투어 SBS토너먼트 우승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새해 처음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SBS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10만 달러·우승상금 122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토마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플라테이션 골프장(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22언더파 270타로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19언더파 273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최보균, 스노보드 유로파컵 평행대회전 우승 최보균(26·국군체육부대)은 8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게틀리겐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유로파컵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1·2차전 합계 1위로 본선에 오른 최보균은 16강부터 준결승까지 승승장구한 뒤 결승에서 다니엘 웨이스(독일)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보균은 “평소 훈련을 하며 새롭게 익힌 라이딩 기술을 적용해 우승했다”고 밝혔고, 이상헌 총감독은 “최보균은 운동감각이 뛰어나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미 정상급 선수로 성장 중”이라며 기뻐했다.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9일)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승차, 연속. Lists teams like 우리은행, 삼성생명, KEB하나, 신한은행, KDB생명, KB스타즈.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팀순위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Lists teams like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한국전력, 삼성화재, 우리카드, KB손해보형, OK저축은행.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팀순위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Lists teams like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인사공사, 현대건설, GS칼텍스, 도로공사.

프로배구 (9일)

2016-2017 KBL D리그 1차(고양보조)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teams like kt, 오리온, WKB.

2016-2017 WKBL 퓨처스리그(용인실내)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teams like kt, 오리온.

NBA (9일)

Table with 4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패/승점. Lists NBA teams and their records.

해외축구 (9일)

Table with 4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패/승점. Lists international football matches.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Table with 2 columns: 팀, 경기. Lists La Liga matches.

GOLF (9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팀. ListsPGA tour results.

NHL (9일)

Table with 4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패/승점. Lists NHL games.

아마추어 경기결과 (9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amateur sports results.

경기 예고

프로농구 (10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professional basketball games.

프로배구 (10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professional volleyball games.

아마추어 경기예고 (10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amateur sports games.

오늘의 토트 (10일)

Table with 2 columns: 순위, 경기. Lists today's highlights.